

— F-105 —

직장에서 발생한 고립성 Peutz-Jeghers 용종 2예

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해부병리학교실

*유일영 · 윤세진 · 전원중 · 채희복 · 박선미 · 이호준

Peutz-Jeghers 증후군은 점막의 색소 침착과 위장관의 다발성 용종증이 관찰되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질환이다. Peutz-Jeghers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가족력이나 색소 침착이 없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Peutz-Jeghers형 과오종성 단일 용종을 고립성 Peutz-Jeghers 용종이라고 하는데, 이는 조직학적으로 Peutz-Jeghers 증후군에서의 용종과 구별되지 않으며, 대부분 소장에서 발견되거나 드물게 대장과 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. Peutz-Jeghers 증후군과는 달리, 고립성 Peutz-Jeghers 용종에 대한 임상상과 자연 경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,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저자들은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용종절제술을 시행 받은 두 명의 여자 환자에게서 발견된 고립성 Peutz-Jeghers 용종 2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— F-106 —

아스피린 복용 후 소실된 대장 용종증 1예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

*박수영 · 김은수 · 박영대 · 윤석진 · 이세영 · 정윤진 · 정민규 · 전성우 · 조창민 · 탁원영 · 권영오 · 김성국 · 최용환

서론 : 최근 아스피린 및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의 암예방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. 현재 1차 예방으로서 아스피린의 대장 종양 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는 잘 알려져 있으나 이미 진단된 대장 용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. 이에 저자는 아스피린 복용 후 퇴행한 대장 용종증의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. **증례 :** 2006년 2월 건강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대장 내시경 상 대장 용종증을 진단받은 47세 남자 환자가 경북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였다. 대장 내시경 소견으로 상행 결장으로부터 횡행 결장에 걸쳐 1 cm 이하의 무수히 많은 수의 무경성 용종이 관찰되었으며, 조직 검사 상 저도의 이형성 선종이 진단되었다. 2006년 3월 본원에서 대장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11개의 용종을 제거하였으나, 오랜 시술 시간으로 인하여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다. 2006년 7월 2차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. 두 번째 점막 절제술 시에도 1 cm 미만의 무수한 무경성 용종이 존재하였으며, 두 번째 역시 모든 용종을 절제하지 못하고 14개의 용종만을 제거한 후 세 번째 점막 절제술을 계획하고 퇴원하였다. 환자는 대장 용종 및 대장암의 예방 목적으로 하루 100 mg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스피린 복용에 의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. 6개월 간의 아스피린 복용 후, 2007년 2월 환자는 세 번째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. 대장 내시경 소견 상 횡행 결장에서 단 하나의 2 mm의 무경성 용종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, 이는 고온 생검 검자로 안전하게 제거되었다. 이후 추적 대장 내시경에서도 더 이상의 용종을 발견할 수 없었다. 이에 본 저자는 다발성 대장 선종 환자에서 아스피린 복용 후 대장 선종이 소실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본 증례를 학회에 보고하는 바이다.